

무등일보

2013년 02월 19일 (화)
16면 스포츠

전남 '악조건' 속 목표 상향 조정

전승현 사무처장, 동계체전 진두지휘

“목표를 낮춰 잡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남 체육인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는 제 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해 진두지휘하며 목표 성적상향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전남은 18일 현재 금 1, 은 2, 동 1개를 획득해 당초 은메달 2개에서 예상밖 선전을 펼치고 있다.

빙상 피겨 여자 고등부 싱글D조에서 박혜영(순천 청암고 3년)이 전남 선수단 중 첫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룩해 기쁨이 배가됐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부진한 경기력을 발로 뛰기로 결심하고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가 격려하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전남의 경기력은 올해가 최악이다.

동계체전의 시설 부족과 우수선수 부상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까닭이다.

첫째는 아이스하키 종목 불참이다. 둘째는 스키 선수 인원 감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수선수 부상과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선수들의 스키 크로스컨트리 불참이다.

전남은 지난해까지 초등부 아이스하키팀을 출전시켰다. 그래서



참가득점 포함 30점을 획득했다.

스키 인구 감소도 악재다.

지난해 스키 알파인에 9명

이 출전했지만, 올해는 4명만이 참가한다. 도내에 훈련장이 없어 무주리조트 등에서의 '더부살이 훈련'에 많은 자원 소요 등 적잖은 애로점이 뒤따라 갈수록 스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생활체육 동호인 증가와는 정반대 그래프다.

여기에 동계종목의 간판스타인 문지희가 부상으로 참가조차 못한다. 매년 '3관왕 단골손님'이었던 문지희의 부상 불출전은 악재 중 악재다. 문지희가 매년 50여점을 득점하였는데, 그 점수가 고스란히 빠질 형편이다.

하지만 전승현 사무처장은 “지난 2012년 부임하자마자 93동계체전에서 종합7위를 달성함으로써 이후 많은 전국규모대회에서 전남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올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경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임정옥기자

10.6 X 21.1 cm

피겨 박혜영 전남 첫 금선사

제 94회 동계체전

전남 '피겨의 희망' 박혜영(순천 청암고 3년)이 제94회 동계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박혜영은 18일 아산 이순신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피겨 여고부 싱글 D조(프리스케이팅)에서 24.20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한 박혜영은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전남에서 이룬 값진 성적이다.

광주도 이날 피겨 싱글 D조 여초, 여중 결승에 나선 전정은(영주초5)과 백세빈(운리중1)이 선전했지만 아쉽게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전남은 지난 15일 울산과학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빙상 쇼트트랙 여초부 2,000m 릴레이에서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내는 역사를 만들었다.

광양 출신의 쇼트트랙 꿈나무 박



동계체전 피겨 여고부 싱글D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순천 청암고 박혜영양이 지도자,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모님, 김유진, 박혜영, 정영주 코치, 박종화 전무) /전남도체육회 제공

신혜(덕례초5), 유채리(칠성초4), 서하늘(칠성초6), 장예은(백운초3)이 3분35초54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귀중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19일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에 출전하는 조인희·김서라(신안군청)·김미선(광양시청)이 바이애슬론 7.5km스프린트와 개인경기 15km에서 메달을 추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남은 금1, 은2, 동1을 획득해 8위(195.5

점)에 올랐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도내의 열악한 동계체육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해 이번 체전에서 선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다"며 격려했다.

한편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막을 올린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1일까지 선수 2천460명과 임원 1천210명 등 3천538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흘간의 열전을 펼친다.

/김기식 기자 pj21@kdaily.com

16.9 X 14.8 cm

南道日報

2013년 02월 19일 (화)
12면 스포츠

전남체육회 동계체전 악조건 속 선전

전승현 사무처장 현지에서 진두지휘

18일 박혜영 피겨서 첫 금메달 선사



전남도체육회가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참가하고 있는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제94회 전국동계체전은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스키, 컬링 등이 사전경기로 치러졌다.

전남은 이번 동계체전 성적 목표

를 종합 10위로 잡아놓은 상태다. 이는 지난해 종합 7위에서 무려 3계단 추락된 예상 성적표.

순위 하락의 요인은 시설 부족과 함께 우수 선수 부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은 우선 아이스하키 종목을 불참한다. 지난해까지 초등부 아이스하키팀이 출전했지만 선수 구성

이 안돼 30점을 획득하지 못한다.

스키 선수 인원 감소로 지난해 스키 알파인 9명에서 올해는 4명만이 참가한다.

마지막으로 효자종목인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선수들의 불참이다.

전남 동계종목의 간판스타인 신안군청의 문지희가 부상으로 참가조차 못한다. 신안군청의 조인희,

김서라 등도 유럽선수권대회 일정과 겹쳐 주종목인 바이애슬론 종목에만 참가한다.

여러가지의 악재속에서도 전남은 18일 현재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순천 청암고의 박혜영은 18일 열린 여자고등부 피겨 싱글D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전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지난 15일 쇼트트랙에서는 여자초등부 2,000m릴레이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는 전남이 동계체전 빙상 쇼트트랙 종목에서 처음으로 따낸 메달.

전남도체육회는 부진한 경기력을 만회하기 위해 전승현 사무처장이 사전경기부터 직접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또한 전승현 사무처장은 빙상 쇼트트랙과 피겨 종목 등을 김상민 사무처장에게 맡겨 선수들의 힘을 불어넣도록 당부했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앞으로 시설 확보, 선수 부족 등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은 물론 경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22.8 X 15.1 cm

전남체육회, 동계체전 초반 선전에 함박웃음

“선수단 氣 살리기 ‘바쁘다 바빠’”

“올 동계체전은 예년에 비해 전력이 약해 목표를 낮게 잡았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다.”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한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이 초반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은 이날 빙상 피겨 여자 고등부 싱글D조에 출전한 박혜영(순천 청암고 3년)이 24.20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땀다.

대회 전 박혜영은 은메달 후보였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이번 대회 전남 선수단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전남체육회는 첫날 일정을 마친 뒤 이번 대회 목표를 10위에서 한 자릿수 순위로 상황 조정했다. 전남은 첫날 금1·은2·동메달 1개 종합 득점 195.5점으로 8위에 올랐다.

사실 전남체육회는 강력한 메달 후보군이 줄줄이 전력을 이탈하면서 이번 대회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까지 참가 기본 점수를 받았던 아이스하키팀은 선수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참했다.

또 국가대표이자 동계체전 다관왕이 확실한 문지희는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고 조인희·김서라 등 바이애슬론 대표팀은 유럽선수권



제94회 동계체전 피겨 싱글D조 여고부에서 우승한 순천청암고 박혜영(가운데)이 싱글D조 초등부에 출전한 나주초 김유진(왼쪽)과 정영주 코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체육회

일정과 겹쳐 크로스컨트리에는 나서지 못한다.

지난해 7위를 차지했던 전남은 이런 전력 누수를 감안해 올 목표를 10위권으로 잡았다.

하지만 전남은 지난 12~16일 펼쳐진 사전경기에서 은2·동메달 1개를 땀다. 예상 목표보다 은1·동메달 1개를 더 추가했다.

특히 쇼트트랙 여초부 2000m 릴레이에서 전남 동계체전 사상 쇼트트랙 첫 동메달이 나오면서 선수단의 분위기는 고조됐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제 기량을 100% 이상 발휘하도

록 사무처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선수단 사기를 올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사전경기 일정부터 강원도에 상주하며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또 쇼트트랙과 피겨가 열리는 울산과 충남 아산은 김상민 사무차장이 맡았다.

전 사무처장은 “전남이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종합 7위를 하며 동계 종목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힘이 됐다.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연 기자 sy passion@

16 6 V 19 Q .m

光州日報

2013년 02월 19일 (화)
15면 스포츠

프리스케이팅 박혜영 전남 첫 금메달

동계체전, 전남 금1·은2·동1 종합 8위 ... 광주 동1개 10위

국내 최대의 종합 동계 스포츠 대회인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18일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남 선수단의 메달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18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빙상 피겨 여자 고등부 싱글D조 프리 스케이팅에서 박혜영(순천 청암고3)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이 딴 첫 금메달이다.

지난해 동계체전 같은 종목에서 은메달(20.82)을 딴 박혜영은 이날 환상의 연기를 선보이며 24.20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전남은 금메달 1, 은메달 2(스키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동메달 1개(빙상 쇼트트랙)로 종합순위 8위를 달리고 있다.

광주는 이날 여자 초등부와 여자 중학부 빙상 피겨 싱글D조 프리스케이

팅에서 전정은(염주초5)과 백세빈(운리중 1)이 각각 출전했으나 상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광주는 동메달 1개(스키 크로스컨트리)로 종합순위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 빙상연맹 박종화 전무는 “박혜영이 운동을 시작한지 3년에 불과한데 순천에서 올라와 광주에서 연습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연습했던대로 잘해줘 좋은 결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광양 부영빙상장에서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 지도자를 하는 한편 본인도 순천대 생활체육학과에 진학해 꾸준히 실력을 연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회는 평창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동계체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2460명과 임원 1210명 등 3538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창, 서울, 아산 등지에서 종목별 경기가 진행된다. 스노보드는 횡성 웰



피겨 여자 고등부 싱글D조 프리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순천 청암고 박혜영(왼쪽)과 정영주 코치. <전남도체육회 제공>

리힐리파크, 바이애슬론은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 빙상 스피드와 피겨는 각각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팅장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된다. 아이스하키는 서울 목동 아이스

링크에서 열린다.

사전경기인 빙상 쇼트트랙, 스키 알파인과 크로스컨트리, 컬링은 이미 모든 경기일정을 마쳤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22.9 X 15.4 cm